

쾌적해진 '철도관사마을'

익산시, 새뜰마을사업 완료... 민·관협력 사례 주목 각종 기반시설 정비·인프라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익산시 창인동 철도관사마을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 추진된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변화된 모습이 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됐고 마을의 자립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지역이 민·관 협력으로 6년여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익산시는 여러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철도관사마을에 지난 2015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69억원이 투입됐으며 도로정비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복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익산시는 다양한 세부사업 가운데 도로와 주택정비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에 난방과 취사가 가능해졌다.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 없던 철도관사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이용 공간이 마련됐다.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과 주민들이 수시로 모여서 마을 발전을 위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구성됐다.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 부담을 줄였다. 이곳에서 마을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각종 폐기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했던 철도관사마을은 주민들의 힘으로 변화했다.

익산시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이곳을 산책로와 다목적 공간, 모정을 갖춘 주민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익산시 창인동 철도관사마을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익산시, 원광대·왕궁 시외버스 정류소 하차 재개

이중 발열체크 불편 해소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금지했던 원광대 및 왕궁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하차를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승차 후 익산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전, 원광대와 왕궁 간이정류소에서도 내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원광대·왕궁 간이정류소의 하차를 금지하고 평화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승객을 유도하여 발열 체크를 해왔으나, 서울 남부터미널 입구에서 승차객에게 발열 체크를 하고 있어 이중 확인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해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시민들이 서울 남부터미널로 이동 시 원광대와 왕궁 간이정류장에서 승차를 하고 돌아올

때에는 평화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만 하차함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을 또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혼선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 이용시 혼란이 해결되어 다행이고 터미널 및 원광대와 왕궁 간이정류장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코로나 블루' 청소년 살핀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 정서 상담서비스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 블루를 겪는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상태까지 세심히 살피는 등 앞서가는 청소년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6월 초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센터 내에서도 개인 상담을 시작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상담 호소문제 영역 중 가족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45.3%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3.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가정 생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겨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고 풀이된다.

또한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

를 착용하고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생활 패턴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 정서 상담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받아들이고,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 분야별(상담팀, 청소년진료팀,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병원서 세 쌍둥이 출산 '화제'

지난 17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에서는 8시 54분에서 56분 사이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듯 우렁찬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제왕절개 분만 수술로 세 쌍둥이를 얻은 세 쌍둥이는 익산에 거주 중인 양모(41)씨 부부의 아들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깊어지고 더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들려 온 세 쌍둥이의 출산 소식은 웃음들이 떠난 우리 주위에 잔잔한 감동과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이날 세 쌍둥이를 출산한 정모(37, 여)씨는 슬하에 본원에서 출생한 1남

을 둔 가정 주부다. 지난 5월 4일 분만실에 입원하여 그동안 자신을 꾸준히 진료해 왔던 산부인과 박성남 교수의 집도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8시 54분에 남아 1.81kg, 8시 55분에 남아 1.83kg, 8시 56분에 남아 1.78kg의 건강한 세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현재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서 부모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세 쌍둥이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병원측에 따르면 전 부검에서 세 쌍둥이 출산은 드문 일 이어서 주위의 격려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픈 마음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내일 10~19시 정보통신서비스 일시 중단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군산시가 청사 전기작업에 따라 일부 정보통신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며 이용 불편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는 20일 10시부터 19시까지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에 따른 전산실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으로 인해 주민등록 열람·발급 및 관련 서비스(주민민원발급기, 정부24), 인터넷 민원, 토지정보, 홈페이지, 행정전화

(당직실 제외)이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는 미리 준비해주시고, 일정을 참고 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설비 안전진단은 직업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군산시, 수산종자 방류

군산시가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해역 연안 어장의 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6월부터 수산 자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4억1천만원을 투입해 이달말까지 개야도·말도·관리도 해역에 조피불락 20만 마리, 납치 55만 마리, 말쭉치 55만 마리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은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무상방류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해상 10만 마리를 방류해 해역 방류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명도·선유도 해역에 꽃게 10만 마리, 주꾸미 10만 마리 각각 방류할 계획이다. 한편에는 무녀도·방축도·연도 해역에 바지락 500만 마리, 해삼 20만 마리 방류할 예정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학 강좌 수강생 모집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강좌! 군산학 강좌가 오는 3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군산학 강좌는 군산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토론회, 역사교육과 현장탐방으로 구성됐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제는 고대·중세시대 군산의 모습, 조선시대 군산의 나라를 떠받드는 버팀목, 개항 이후 변화된 군산의 모습, 군산 문화유산 탐방, 유적과 유물로 살펴 본 군산의 옛 모습 등 군산의 역사를 시대별로 조망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강의실에서 오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약 3개월 동안 총 10강으로 진행된다. 수강생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선착순 80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군산대 산학협력단 전북역사문화교육연구소 ☎063-469-7359, 010-2714.6057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